

제주농민, 그 어느 해보다 힘겨운 농사

농촌진흥청 '2018년산 농산물 소득 조사' 결과 21개 중 3작목만 상승... 봄감자 하락폭 가장 커 시설감귤 단위면적당 소득 1위... 맥주보리 꼴찌

지난해 제주지역에서 재배된 주요 농산물 중 대다수에서 소득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수입에서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 소득률 조사에서도 대다수 도내 농산물이 하락했다.

17일 농촌진흥청의 '2018년산 농산물 소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재배된 주요 21개 작목 중 전년보다 소득이 오른 작목은 3개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8개는 일제히 하락했다.

농산물 소득은 총수입에서 생산비를 뺀 나머지로 농촌진흥청은 해마다 작목별로 단위 면적(1000㎡)당 생산량과 단가, 생산비 등을 조사해 작목 재배에 따른 실 소득과 소득률을 산출하고 있다.

소득 수준이 가장 악화된 작목은 봄감자였다. 지난해 봄감자를 재배한 도내 농가는 1000㎡ 당 39만여원을 벌어들여 소득 수준이 1년 전(88만여원)과 비교해 절반 넘게 쪼그라든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률도 1년만에 42.1%에서 23.2%로 급락했다. 지난해 봄감자 단가는 소폭 올랐지만 작황 부진으로 상품화율이 50%대 수준으로 추락하고, 생산비 상승폭도 커 이갈

은 큰 폭의 소득 하락을 불러온 것으로 분석됐다. 또 가을감자 소득은 1년 전보다 26만여원 줄어든 129만여원에 그쳤다.

소득 감소 폭이 봄감자 다음으로 컸던 작목은 월동무다. 지난해산 월동무 소득은 77만여원으로 1년 전 155만여원에 견줘 50.1% 감소했다.

월동무 생산비는 1년 전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단가와 상품화율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커 전체 소득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제주의 주력 작목인 노지감귤도 고전을 면치 못했다. 지난해 노지감귤 소득은 단위 면적당 241만여원으로 전년 303만여원에 비해 62만원 감소했다. 노지감귤 소득률은 71%에서 66.6%로 4.4%포인트 감소했지만 21개 작목 중에서는 가장 높았다.

나머지 작목도 상황은 비슷했다. 월동무, 브로콜리, 쪽파, 풋·구마늘, 조생양파, 당근, 양배추, 잡다래, 시

설감귤, 하우스월동감귤, 한라봉, 천혜향 등 대다수 작목의 소득이 적게는 8만원에서 많게는 250만원 가량 줄었다. 이들 농산물의 소득률도 일제히 하락했다. 그나마 노지딸기(42만원), 노지수박(24만원), 겨울감자(21만원 상승)의 소득이 오른 것은 위안거리였다.

한편 지난해 단위면적당 가장 높은 소득을 올린 작목은 시설감귤로 1201만여원을 기록했다. 반대로 가장 소득이 낮은 작목은 맥주보리로 1000㎡ 당 16만여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민기자



“애타는 농심(農心)”... 폐허로 변한 농경지 농민들의 애간장을 태우던 가을장마가 물러갔다. 17일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의 들녘에서 는 물이 빠진 농경지가 폐허로 변한 모습을 드러내며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강희만기자

감귤수확철 인력난 현장서 원스톱 해결

20일 서귀포매일올레시장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제주특별자치도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감귤수확 시즌-구인 구직 만남의 날'을 오는 20일 오후 2시 서귀포 매일올레시장에서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구인 구직 만남의 날 행사는 특별히 감귤수확 시즌에 맞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력수급이 어려운 선과장 근로에 대해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지난달 27일 제주시 4개지역 감귤 선과장(장전리, 와흘리, 금능리, 도남동)에서 근무할 인력 40명을 모집하는 구인구직만남의 날 행사를 통해 현재 15명이 채용돼 근무중이다.

이번 행사는 서귀포시 관내 감귤 선과장(도평동, 남원읍 신흥리, 회수

동)에서 근무할 41명을 모집할 예정이며, 활동분야는 감귤선별·포장·상품화 공정 및 작업장 정리이다. 일급 6만6800원, 20일 만근 시 174만원 정도로 만60세 이상 희망 구직자는 현장 면접 진행 후 바로 채용될 예정이다. 채용 후에는 최대 8개월간 계약직으로 일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사전신청 (064-710-4458)하거나, 당일 현장에서 사업 설명회를 듣고 면접에 참여할 수 있다. 조상윤기자 sycho@ihalla.com

알림

제주현안 현장탐방 청소년 캠프

2차 참가자 모집

2019 JDC와함께하는 제주탐방 청소년캠프

한라일보는 올해 청소년들의 눈으로 제주의 현안을 짚어보며, 재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2019 JDC 제주탐방 청소년캠프'를 운영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일시: 9월29일(일) 오전 10시-오후 5시

▶대상: 도내 초(4-6)·중·고등학생

▶모집인원: 20명(선착순 마감), 참가비 무료

▶신청기간: 9월18일 ~ 9월23일까지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brighthh@naver.com)

※서식-이름/학교/학년/연락처 기입

※참여자 대상자는 9월24일 오전10시 개별문자 발송

※1차참여자는 후순위로 참여가능

▶교육내용: 팀별 제주현안(환경, 안전, 교통문제 등) 현장탐방

▶문의: 010-4369-3011

도의회 임시회 개회... 카지노정책 '주목'

18~24일 7일간 의사일정 돌입 조례안 심사·현장방문 등 진행

제주자치도의회 제376회 임시회가 18일부터 7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하는 가운데 제주 카지노산업 정책 방향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와함께 지난달 제주도 풍력발전 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대정 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과 이호 유원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처리 여부도 관심사다.

오는 24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에는 조례안 34건, 규칙안 1건, 결의안 1건, 동의안 25건, 계획안 4건 등 총 65건의 안건이 접수돼 심의가 이뤄진다.

이 가운데 문화관광체육위원회가 23일 제주도로부터 보고 받은 '제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보고'가 주목된다. 앞서 도는 도내 카지노의 신설·확장·이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제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연구용역에서는 카지노 사업장 신설뿐만 아니라 확장·이전의 경우도 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문광위는 이번 보고를 통해 용역

에 대한 타당성·적정성을 심의하는 등 제주 카지노 정책 방향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심사보류중인 영업장 이전을 통한 카지노 대형화를 막겠다는 취지의 '제주도 카지노 관리·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이후 다뤄질 전망이다.

이와함께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심사를 비롯 현장방문이 이뤄진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국·도비 400억원이 투입되는 해중경관지구 조성사업의 일환인 해양레저체험센터 신축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할 예정이며, 환경도시위원회는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건설계획 백지화 진정의 건 등을 비롯해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 심의를 위해 조성사업 부지를 현장방문한다. 농수축경제위원회는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 심의와 '더 큰 내일센터' 현장방문이 예정돼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고산리 당산봉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공사현장을, 교육위원회는 국제학교 운영 및 문제점 등을 청취하기 위해 KIS 등 제주영아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4곳을 방문한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 '아프리카돼지열병' 여파 타 시·도산 돈육 반입 금지... 4면

culturemoon.com

2019 대한민국 문화스틸

2019. 10. 18(금) ▶ 20(일)

제주시 탐라문화광장 | 칠성로 원도심 | 관덕정 일원



'대한민국 문화의 달'은 문화예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 제고를 위해 '문화기본법 제12조'로 10월을 '문화의 달'로 지정하였으며, 10월 셋째주 토요일을 '기념일'로 지정, 국가 기념행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지역문화와의 연계를 위하여 지역 순회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해 제주시에서 유치하여 '문화도시 제주'를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기념식 외 '문화도시 제주'를 만들기 위한 실험적인 프로그램들이 제주 곳곳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기념 프로그램

기념식 '문화의 빛, 맞이' (수상 특별 공연) / 10.19(토) 18:30~ / 산지천 수상 특설무대
전달식 '문화, 그 빛의 기억' / 10.20(일) 18:30~ / 관덕정 특설무대 및 일원

기획 프로그램

미디어 아트전 '시간의 벽'
메이드 인 제주 '영감의 땅 제주'
합동창작 '느그나영 문화바람'
지역문화 컨퍼런스 '이제는 느그나영'
달빛 놀이터
동네 음악회

지역문화 프로그램

명작 오페라 모차르트 '마술피리'
제주 창작 연극 '홍윤애 - 섬에서 사랑을 찾다'
제주 더불어 놀다 연극제
제주시 뮤지컬 아카데미 '청 이야기'
제3회 전국 문학인 제주포럼
2019 제주 프린지 페스티벌
제주국제실험예술제
국제 문화 주간

문화로 행복한 대한민국&제주 젊은 그림 공모 / 합동창작전 아이디어 및 참여단체 모집 (신청기간. 9월20일)



문화체육관광부



Jeju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